■ 이명박 후보 '탕평인사' 단행할까

'先화합' 강조… 朴측 인사 중용

후보비서실장 등 금주중 임명…선대위·특보단 호남 인사 참여 주목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당 조직개편 및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탕평인사'의 실행 및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선대위, 특보단 구성 등에서 호남의 창구가 될 수 있는 지역 인사들의 참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이 후보는 여의도 캠프 해단 모임에 참석, '선(先) 화합, 후(後) 변화'입장을 분명히 하며 박근혜 전 대표 측 인사들을 적극 중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이날 "누가 인위적 인적쇄신을 한다고 했느냐"며 최근 당내의 인적쇄신 논란을 일축하면서 "그런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며 어림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측근들을 전진 배치해야 하는데다 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적 청산'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족될 후보 비서실과 특보단 등에는 핵심 측근 인사들이 일부 기용되는 한편 대선기획단과 유세지원단 등에는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과 중립 성향 의원들이 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24일 발표될 예정인 후보 비서실장에는 이명박 후보 지지 성향을 보였던 임태희 의원과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최병국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특보단에는 경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일부 언론특보와 외부의 신진인사들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며 호남 출신 정치권 인사들의 합류가 예상된다.

또한, 이르면 내달 중순, 늦어도 추석 직후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선대위에는 박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많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며 호남 출신들도 상당 부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원내대표에는 이 후보와 코드가 맞는 인사가 대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사무총장도 친 이명박 성향의 의원이 임명될 전망이다.

당장 원내대표에는 친 이명박 성향의 안상수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선대위 선대본부장을 맡게 될 사무총장 후보로는 충성도와 당 실무 장악력 등을 고려, 3선급 이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명박 후보가 호남권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밝힌 만큼 선대위나 특보단에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거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호남지역 명망가나 중량급 인사들이 한나라당에 입당하기를 꺼리는 등 인재 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北 구호물자 싣고 가는 트럭 북한 수재민에게 전달될 남한의 긴급 지원물자가 실린 트럭이 23일 오후 남측 출입국사무소를 통과하고 있다. 수해지원 물자는 25t 트럭 450대 분량으로 모두 전달하는데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탈레반의 입' 아마디 교전중 총상

탈레반의 대변인 격으로 인질 사태 이후 탈레반의 입장을 대외에 밝혀왔던 카리 유수프 아마디가 나토군과 아프간군의 공격을 받아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했졌다.

아마디는 21일 밤(현지시각) 연합뉴스와 간접통화에서 "20일 밤 '적'의 공격을 받아 손과 다리에 총탄을 맞았다"며 "중상은 아니지만 걸을 수도 없고 일(대변인 역할)도 당분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다른 곳으로 옮겨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변인도 전투에 참가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나 역시 지하드(성전)를 수행하는 탈레반의 무자헤딘(전사)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나토군은 20일 밤 아프간 서남부 헬만드주의 상가인 조이샬리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벌였다.

또 아마디가 탈레반 지도부의 직속 대변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가 총상을 입었다는 것은 나토군과 아프간군의 공세 수위가 탈레반 수뇌부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정부 공무원 1,000명 더 늘린다

내년 2월까지 19개 부처서…대부분 사회·복지분야

참여정부가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1만2천442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데 이어 남은 임기 6개월간 또다시 19개 부처에서 공무원 1천명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임기말인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모두 19개 부처에 걸쳐 공무원 1천명 가량을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을 증원키로 한 부처는 정보통신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19개 부처이며, 특히 상당수 부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 추진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을 행자부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면서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인력을 대폭 늘려왔다"면서 "증원되는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규 증원 인력 가운데 일부는 경찰서 신설, 정부내 통합전산센터 구축 등에 따른 불가피하게 증원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盧대통령 내달 8~9일 호주 APEC 회의 참석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8~9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제15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 6자 회담 참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주요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선 대변인은 APEC 기간 양자 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관련, "아직은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우리의 현안과 관련된 주요 국가정상과의 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中, 위생불량 젓가락도 대량 유통"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젓가락 제조업체가 살균작업도 거치지 않은 1회용 젓가락을 대량으로 유통시키다 적발됐다고 베이징뉴스(北京新聞)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사법당국은 무허가 업체인 이 회사를 압수수색해 50만여벌의 1회용 대나무 젓가락과 포장기계를 압수했으며 이 회사는 소독도 하지 않은 1회용 젓가락을 매일 10만벌 가까이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젓가락마저 믿을 수 없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산 담요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량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리콜처분이 내려졌다.

호주에 본사를 둔 유통사인 찰스 파슨스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담요 상당수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자발적 리콜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